



‘잔식’ 소외계층 기부 봉사·탄소중립 앞장

한라환경대상

오 중 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학교 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소외계층까지 돌보는 ‘온기’



제31회 한라환경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은 오중민(사진) 경기도 교육청 사무관이 차지했다. 오 사무관은 급식 과정에서 손도 안된 음식, 이른바 ‘잔식’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는 2021년 10월 경기도 수원 호원고등학교에 재직할 당시, 코로나19에 재학생 2명이 감염되자 손도 안된 보쌈 1100인분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했던 것을 보면서 잔식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깝게 버리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 잔식 기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는 사회복지법인과 푸드뱅크와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잔식 기부처를 모집했으며, 해당 기부처에서는 매일 학교 급식이 끝나는 대로 이를 수거해 당일 즉시 취약계층에게 배송한다. 이와 함께 그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일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관내 빵집과 떡집과 함께 독거노인 등에 기부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활용 현수막 등 탄소중립 및 나눔과 관련해 시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 사무관은 “가끔 학교급식 잔식을 기부받으신 어르신들이 감사의 편지 등을 보내곤 한다”면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인근 빵집과 떡집에서도 매주 음식을 기부해주고 있다. 학생들과 교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종일 굶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학교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있다”면서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음식 기부, 음식물쓰레기 절감 관련 조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제주 환경 사랑하고 행동하는 청년들

한라환경실천상 최우수

제주대 환경동아리 ‘RE:EARTH’

도내 곳곳서 ‘플로깅’ 활동
SNS 이벤트 등 동참 홍보

제31회 한라환경대상 환경실천상 부문 최우수상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EARTH’(회장 전성환·이하리 리얼스·사진)가 수상했다. 리얼스는 제주대 동아리연합회 소속 정규동아리로 2021년부터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사랑하는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실천이 제주도민과 전 국민까지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리얼스는 제주 해안 곳곳을 다니며 환경 정화 플로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00회 이상의 플로깅을 진행하고 있다.

며,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바다의 오염 수준 및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해양 모니터링도 2개월마다 1회 이상씩 하고 있다.

또 이들은 공식 인스타그램 및 교내 바다 사진 전시 등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4·3역사기행 및 플로깅, 도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1학교 1바다 가꾸기 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전성환 회장은 “한 줌의 갈래래, 한 방울의 땀이 모여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하며 제주 바다에 물려오는 해양쓰레기들을 줍고 또 줍고 있다”며 “MZ세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졌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주제로 앞으로 더 많은 리얼스는 제주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한라환경지킴이상 표선초등학교·백혁 교사

환경 동아리 운영하며 학생 주도형 교육·활동

학생들과 생태계 탐구... 보고서 작성 눈높이 교육



▶학교부문=표선초등학교

표선초등학교(교장 송성환·사진)는 2023년 5월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복지 환경탐구 동아리 C.E.O(children environment organization)를 운영하며 학생 주도형 환경 교육과 환경 보전에 나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표선초와 동아리는 우유팩을 재활용한 ‘화분 만들기’, ‘제주도 지도 만들기’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우유팩 15개를 씻어 말려 교육복지실에 가져오면 재활용 두루마지 휴지 1개로 교환하는 운동을 펼쳐 교내에서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교사부문=백혁 화순오성초등학교 교사

화순오성초등학교 백혁(사진) 교사는 화순교육지원청의 ‘생태 환경 사제 동행 동아리’ 운영 교사를 맡은 것으로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환경 교육 활성화에 기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2023에는 영산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아리 공동 실천을 선언하는 한편, 영산강 지류 지식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생태환경 위기·극복 보고서 등을 학생 눈높이에서 작성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인 점을 인정 받아 전남도교육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채현기자

한라환경 UCC 임지은·손시현·제주밤바다·김아현·심윤하



▶최우수(일반 및 대학) =임지은(검바위초등학교)

검바위초등학교 임지은(사진) 교사는 ‘물’이란 작품 명으로 물의 소중함을 전하는 캠페인 송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임 교사가 작사·작곡·편집을 하고 학생들이 출연해 노래하는 환경 뮤직비디오로 물을 아끼고 지킬 때 깨끗한 물을 보유하는 친환경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소망을 담았다.

▶우수(일반 및 대학) =손시현(화운유치원)

화운유치원 손시현(사진) 교사는 5살 유치원 친구들이 한달 간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 절약 실천하는 모습을 제작했다. 참여한 아이들은 ‘물을 아끼는 방법을 엄마, 아빠, 할아버지, 선생님에게 알려 주겠다고 하는 등 물 절약 습관을 주변에 전파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우수(고등부) =제주밤바다(충남 삼성고등학교)

충남 삼성고등학교 정동운, 권서진, 김수(사진) 학생으로 꾸려진 제주 밤바다팀은 탄소 흡수량까지 높여야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을 영상에 담았다. 이들은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이 배출량 감소에만 치우쳐 흡수량 향상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수(중등부) =김아현(안덕중학교)

안덕중학교 김아현(사진) 학생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의 내용을 담은 ‘아나바다’를 주제로 UCC영상을 만들었다. 김아현 학생은 낭비를 줄여야 깨끗한 환경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담아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초등부) =심윤하(인화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심윤하(사진) 학생은 UCC를 통해 주인공이 길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환경 요정 새끼이를 만난 후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 영상 주인공으로는 심윤하 학생의 친구가 등장해 이야기를 전한다.

한라환경실천상 우수

정 효 린

분리배출 웹 지도 개발 등



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서핑을 즐기러 해안가를 찾는 서퍼들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보호

제31회 한라환경대상 환경실천상 부문 우수상은 환경 보전을 위해 다양한 학습을 연구한 정효린(사진)씨가 수상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 씨는 ‘독립제주대학생의 분리수거 현황 조사 및 분리수거용 향상 방법 고찰: 고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 연구를 진행해 서울 성북구 안암지역 분리배출 웹 지도 개발과 자취생을 위한 분리배출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을 위한 분리배출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을 위한 분리배출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을 위한 분리배출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했다.

활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했고, 비영리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중에서의 정화 활동도 진행해 800kg 가량의 부유물을 수거했다.

정 씨는 “서핑을 하던 중 물에 빠졌을 때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비닐봉지에 숨이 막혀 힘들었던 경험 이 있다. 그때 문득 몸집이 큰 나도 힘든데, 작은 생물들은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걱정이 됐다”면서 “그 경험 이후 환경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경 양만배 대표님의 이학박사(외식조리관리학)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축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양만배 조리능장(Master Chef)이 어머님의 손맛처럼 만배(萬배)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萬倍誠韓定食)이 색다른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1:3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특A(4인이상) : 1인 79,000
A(2인이상) : 1인 59,000
B(2인이상) : 1인 49,000
C(2인이상) : 1인 39,000

주중 점심특선(2인이상)
1인 28,000 (도민할인가 → 25,000원)

※ 본 사진은 특A코스입니다.

※ 모든 요리에는 갖가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

1층 만배성 밥집 예약취급 안내

돌잔치 결혼피로연 친목단체 동호회 등 각종연회 세미나를 위한 **업장취급 및 출장취급** 예약 받습니다.

메뉴별 가격대(부가세 별도)

₩ 25,000 ₩ 35,000 ₩ 50,000 ₩ 70,000

메뉴 및 가격은 상담후 조정 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064)712-6800

만배성 박스 케이터링 안내

박스 케이터링 A: 1인 35,000
박스 케이터링 B: 1인 50,000
*** 10인 이상 가능합니다.